

제96회 제1차 목포시의회 회의록

1. 개 의 : 단기 4292년 6월 1일 상오 10시 10분
2. 폐 의 : 단기 4292년 6월 1일 하오 12시 50분
3. 장 소 : 목포시의회 의사당
4. 사 회 : 의장 김 삼 성
5. 출석의원 : 재직 16명 전원
6. 출석공무원 : 시장 하동현, 부시장 이병규 및 각 과장
교육감 박세문

7. 의사일정

◆보고사항

- (1) 제95회 목포시의회 회의록 통과

◆부의안건

- (1) 단기 4291년도 목포시 일반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 (2) 단기 4291년도 목포시 수도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 (3) 단기 4291년도 동정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 (4) 단기 4291년도 목포시 도선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 (5) 단기 4291년도 목포시 공익 전당포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 (6) 단기 4291년도 목포시 국민주택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 (7) 단기 4291년도 목포시 재건축주택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 (8) 단기 4292년도 제1회 목포시 교육위원회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8. 토의사항

◎ 제95회 목포시 의회 회의록 통과

서기 박찬대 낭독 이의없음으로 통과

◇정 응 표 의원 긴급 동의

- 현금 광주상공회의소를 대표한 몇몇 업자들이 광주발전을 중심으로 한 호남선 이설운동을 전개하고 교통부장관을 방문하였음에 광산군에서는 호남선 광주우회반대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관계요로에 반대건의를 하고 있다는 바, 이는 당 시의 발전과 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것으로 묵과할 수 없는 중대사이오니 당 시의회에서도 이에 호응, 반대진정문을 관계요로에 제출함과 동시에, 거시적인 대책준비위원회를 구성토록 추진할 것을 긴급동의

- 재청..삼청이 있었음.

◇김 성 균 의원

- 찬성발언

- 표결결과 만장일치 가결

◇의장 김 삼 성

- 호남선 광주우회반대투쟁위원회 구성 추진위원으로 김성균, 정응표, 조양순 의원을 지명

◇김 상 태 의원

- 금차 회의 산회 후 목하 집행부에서 추진중에 있는 상수도 공사, 삼학도 공사 등의 현장을 답사 시찰할 것을 동의하다.

- 재청...삼청이 있어 표결결과 만장일치 가결

◇김 창 희 의원

- 과반(過般) 의회에서 각 학교별로 잡부금 징수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한 바도 있거니와, 각 학교에서는 이의 대가로 아동들에 대한 숙제 같은 것을 일제히 배부치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교육청에서는

각 학교별로 소모품을 지체없이 영달(令達)함과 아울러, 이 기회에 각교 학급별의 실정을 감안하여 다소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마련하여 여사 폐단을 막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김 남 진 의원

- 김창희 의원의 발언을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나, 각 국민학교에서는 도에 넘치는 각종 각목의 물품을 강매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이를 경계하는 의미에서 본 의원의 동의로서 그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였던 것이다.

◇조 양 순 의원

- 김창희 의원의 발언과 같이 6학년 아동에게 대하여도 이러한 처사를 감행함은 시의회에 대한 각 학교의 반박행위인 것이다.

◇정 응 표 의원

- 본 건에 대한 실정을 알기 위하여 대 집행부 질의 동의

◇강 영 락 의원

- 찬성발언

- 표결결과 만장일치 가결

◇김 경 인 의원

- 규칙-교육위원회의 추경예산안 중 120만환의 소모품을 삭감까지 하였는데 이를 다시 번안하지 않는 한 잡부금 징수를 건의하자는 것은 위법이 아니겠는가.

◇정 응 표 의원

- 대 집행부 질의

(1)진학할 아동에 대한 특수교육은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을 중지시킨다는 것은 교육위원회와 시의회를 반박하기 위한 수법이 아닌가 여부

(2)120만환의 소모품을 삭감하자는 것은 각 국민학교장들의 요청이라 하였는데 이에 대한 진상 여하

(3)미취학아동에 대한 대책 여하

◇강 영 락 의원

- 국민학교 교사들이 특수층의 가정에 고용교수를 하는 수가 몇이나 되는가.

◇이 정 권 의원

- 교육감은 소모품비 120만환을 당 의회에서 묵인한다면 번안할 용의는 없는가.

◇조 양 순 의원

- (1)월구(越區) 아동에 대한 통제를 아는가.
- (2)연령 초과아동을 집단 수용하는 학교가 있는데, 이의 방침 여하

◇김 상 태 의원

- 수련장 강매분의 환원조치의 의향은 없는가.

◇정 응 표 의원

- 저반 각 국민학교 대항 야구대회 당시 연령 초과 수용학교문제로 일부 선수아동들의 신장 등을 측정하여 퇴장시킨 사례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내용 여하

◇박 교육감 답변

- (1)각 국민학교에 과외수업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의무교육의 근본 취지인 국민학교의 존립 목적에 위배되기 때문이며 아동들의 건강을 위한 것입니다.

- (2)그리고 교육위원회와 시의회에 대한 반발행위여부 문제는 저반 5월 22일 교장회의에서 용지대를 징수함은 생색 자모가 생기기 쉬우니 소정과목만을 가르치기로 결정지은 것이고, 조금만치라도 어떠한 반발적인 처사가 있다면 다함은 언어도단인 것입니다.

- (3)소모품비 120만환에 대하여는 의회측에서 묵인하여 주신다면 환원조치할 용의가 있는 것입니다.

- (4)각 학교별 용지 배정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수량은 정상적으로 지급하였으며 이후 잡부금은 일체 징수않기로 하였습니다.
- (5)개인교수 문제는 자기반의 아동은 일체 않기로 하였습니다.
- (6)월구 아동은 각교장들의 보고에 의하면 없다고 듣고 있으며 연령초과자의 집단수용한 학교는 없습니다.
- (7)야구대회문제는 금시초문입니다.

◇김 일 섭 의원

- 질의종결 동의 (찬성 없으므로 폐기)

◇정 응 표 의원

- 방금의 교육감의 답변에서 120만환의 소모품비를 환원조치할 용의가 있다고 말을 하였는데, 그날의 거수의원들을 모독한 처사라 아니 할 수 없으며 여사 기만예산을 제안한 진의가 나변(那邊)에 있는가.

◇이 정 권 의원

- 교육감은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갈 용의는 없는가.

◇김 상 대 의원

- 한 번 통과된 예산을 가지고 시시비비한다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된 처사가 아니겠는가.

◇김 남 진 의원

- 6학년에 한하여 용지대를 받을 용의는 없는가.

◇김 경 인 의원

- 김상대 의원의 발언이 지당하다고 보아지며 이 문제는 교육감과 의회가 공동책임을 저야 할 문제라고 보아지며 교육감이 물러나갈 용의가 없느냐의 질의는 번안된 예산이 제안되었을 때의 문제이고, 요는 김창희 의원의 발언인 용지대 징수는 위법된 처사이니 결의할 수 없는 처사인 것이다.

◇강 영 락 의원

- 교육감은 6학년 진학아동에 대한 교수안을 확대하기 바란다.

◇김 상 태 의원

-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5개 국민학교장과 학교관계 조사위원간의 좌담회를 갖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김 창 희 의원

- 찬성발언

◇김 경 인 의원

- 질의 종결동의
- 만장일치 가결

◇의장 김 삼 성

- 교육위원회 결산안도 일응 상정함이 좋을 것 같다.

◇정 응 표 의원

- 원안이 회부안된 것을 여하히 상정할 것인가.

◇총무과장 장 건 식

- 제안이유 설명

◇의장 김 삼 성

- 부의안건 제1장부터 7장까지를 각 해당 상임분과위원회에 회부선언

◇정 응 표 의원

- 이번 회기중에는 하(河-하동현시장) 시 행정의 총결산이오니 감사기일을 6월 2일까지 연장할 것을 동의하다.

- 재청..삼청이 있어 표결결과 만장일치 가결

◇김 창 희 의원

- 감사반의 편성은 각의원의 희망제를 채택할 것을 동의하다.

- 재청...삼청이 있어 표결결과 만장일치 가결

시행정감사반 편성상황

제1반 박두순, 임석희, 김경인, 김상태, 김성균

제2반 명남철, 천철수, 이정권, 김일섭, 강영락

제3반 정응표, 김상대, 조양순, 김창희, 김남진 의원으로 결정됨.

◇의장 김 삼 성

- 산회 선언하다.

(하오 0시 50분)

위 회의록을 확인키 위하여 자이 서명 날인함.

단기 4292년 6월 3일

시의원 김 성 균

시의원 김 일 섭

작성자 서기 주 도 식

제96회 제2차 목포시의회 회의록

1. 개 의 : 단기 4292년 6월 13일 상오 10시 30분
2. 폐 의 : 단기 4292년 6월 13일 하오 3시 25분
3. 장 소 : 목포시의회 의사당
4. 사 회 : 의장 김 삼 성
5. 출석의원 : 재직 16명 중 출석의원 14명
결석 임석희, 강영락 의원
6. 출석공무원 : 시장 하동현, 부시장 이병규 및 각 과장
교육감 박세문 및 이 사무장

7. 의사일정

◆보고사항

변호사 김성호 씨에 대한 정병조 토지이전등기 소송사건 사례금 지불의 건

◆부의안건

1. 7월호 잡지 「야화(夜話)」 기사 규탄의 건
2. 단기 4291년도 목포시 교육위원회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8. 토의사항

◇서기 박 찬 대

- 변호사 김성호씨로부터 들어온 사례금 청구서한 보고

◇의장 김 삼 성

- 부의안건 제1항 상정 선언

◇김 상 대 의원

- 제안이유 설명

◇정 응 표 의원

- 이 문제에 대하여는 김공보실장의 태도가 미온적이라고 전문(傳聞)하여 진다.

- 본 건에 대하여 사건 담당자들을 전남출신 민의원의 이름으로 고발하지 아니하면 우리 시의회의 명의로써 고발할 것을 동의
그리고 고발에 대한 절차는 의장이 지명한 4인정도의 의원에게 일임할 것을 첨가한다.

◇김 성 균 의원

- 본 건은 기이 고발조치된 것이니 그만두고 관계요로에 건의문을 발송하고 해지(該誌)의 폐간 및 당무자의 엄벌을 요청한는 것에 그치면 좋겠다.

◇김 창 희 의원

- 민족분열을 조장시킨 처사는 공산당과도 다를 것없다. 이러한 기사를 게재한 관계자들을 극형에 처하도록 관계당국에 건의하자.

◇조 양 순 의원

- 문필에 의한 수소탄 세례를 받은 감이 있으며, 더욱 작성자가 월남한 사람이라니 가일층 분개하지아니할 수 없으며 김공보실장은 이에 대한 사전조치가 없었다는 것도 또한 유감이라 아니할 수 없다.

◇정 응 표 의원

- 본 의원의 동의에 필자뿐 만 아니라 발행인 편집인까지 동일취급토록할 것을 첨가한다.

◇이 정 권 의원

- 도의회에서 각급 지방의회에 동일보조를 취하도록 연락을 하였다는 신문 보도가 있는데 우리 시의회에서도 2,3인 정도의 대표를 선정하여 이를 일임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정응표 의원 동의 표결결과 만장일치 가결

◇의장 김 삼 성

- 이의 전문위원으로 정응표, 김성균, 심상대 의원을 지명함.

◇김 남 진 의원

- 교위청의 인화문제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의사일정을 변경함과 아울러 이 채섭 사무장이 상사인 교육감에 대하여 공사석을 가리지 않고 불손한 언사로 욕설을 감행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파면 건의까지를 할 것을 동의

※ 의사 일정 변경 동의 만장일치로 가결

◇김 경 인 의원

- 김남진 의원의 동의에 대하여는 인사행정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비공개리에 논의하도록 함이 좋을 것 같다.

◇정 응 표 의원

- 이사무장은 박교육감을 모독하는 언사를 공공연히 자행하는 것이며, 「박세문식으로 하지 마라」는 등등의 언사를 쓰는 것을 들었는 바 현금 박교육감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겠금 만든 것은 그의 보조자인 책임도 있는 것이다.

- 이 사무장은 오늘 의제에 상정 처결된 야화지(夜話誌)에 나온 관련자와도 다를 것없는 것이다. 이는 공개리에 논의하여야 할 문제이다.

◇김 남 진 의원

- 이 사무장을 뒤서는 안될 이유로서 또 한가지는 상식적인 면으로 보아서라도 전임자의 일은 자기 일보다도 더 잘 보살펴주어야 할 것인데, 이것은 전연 모른다고 뻔하는데도 있는 것이다.

◇이 정 권 의원

- 교육위원회의 감사원으로서 김남진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참고로 말씀드

리나 예산자체가 없는 채무는 채무확정이 아닐 것이며 감사 당시 본의원이 이 문제를 들고 일괄하여 이 사무장을 추궁할 적에 모업자가 이 사무장을 조르니 「나는 모른다」 나온 말이었을 것이다.

◇김 창 희 의원

- 상사에게 그러한 언사를 자행하였다는 것은 관기(官紀)를 문란시킨 소행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목포시 전체의 교육을 위하여서도 묵과할 수 없는 처사이니 이는 공무원의 자격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김남진 의원의 동의에 찬성하는 바이다.

◇김 남 진 의원

- 본의원의 동의에 대하여 제의원이 동조하시어 가결되어 도당국에 이 문제를 건의하여 만약 도당국에서 하등의 태도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이후 교육위원회 전체문제에 대하여 노-터치할 것을 첨가한다.

◇명 남 철 의원

- 여하튼 이 사무장의 평소의 언동은 나쁘다. 그러나 사무조사 당시 느끼는 바이나 제반교육행정의 사무적인 면으로 고찰할 적에 진일보하였다는 것을 참고로 말한다.

◇김 성 균 의원

- 이 문제에 대하여는 교육위원회의 의견을 듣기로 일응 보류하여 두기로 하고 차후 이 사무장의 언동은 삼가주도록 경고 정도로 그칠 것을 개의 정응표 의원-이 문제를 교육행정의 시비와 결부시켜 사무감사와 관련시키려 하는 것 같으나 그와는 별개 문제로 따져야 할 것이다.

◇김 상 대 의원

- 김성균 의원의 개의에 찬성발언

◇김 남 진 의원

- 이렇게 되면 교육행정의 전면적인 이면을 폭로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여비를 출장직원에게 정당히 지불하지 않고 사무장이 타처에 유용한 실례도

있는 것이다.

◇김 경 인 의원

- 공공단체에서 어떠한 직원이 망언을 하였다는 것은 규탄을 받아야 할 문제라고 보아지나 공석상에서 이러한 욕설을 하였다 함은 그에 대한 어떠한 원인이 있을 것이니 이의 이유같은 것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사숙고 하여 처결할 문제라고 보아지며, 단도직입적으로 건의하는 것보다 개과천선할 기회를 가지도록 김성균 의원의 개의에 찬성한다.

※ 정응표 의원 퇴장

(11시 40분 재석 13명)

◇의장 김 삼 성

- 금일 정오부터 재일교포 북송반대 쉼기대회가 있으니 의사진행을 급속히 해야겠고 이 문제는 인사에 관한 문제인 만큼 당사자의 변명도 있어야겠고 교육위원회의 의견도 청취한 연후 결정지어야 될 일이라고 보아집니다.

◇김 일 섭 의원

- 찬성발언

◇김 남 진 의원

- 동의자의 의견을 관철하기 위함이나, 교육세 부과의 부정과 학교 교직원 여비유용 등 중대과오를 범한 증거도 있는 것이다.

◇이 정 권 의원

- 김남진 의원은 교육청의 이면상을 공개한다는 등의 중대한 발언을 하였는데 이 기회에 털어놓고 논의키로 하자.

◇김 경 인 의원

- 금일정오부터 역전광장에서 재일교포 북송반대 쉼기대회가 개최되는 바 여기에 참석하기 위하여 본 회의를 일단 중지하여 오후에 속개할 것을 동의하다.

- 재청...삼청이 있어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의장 김 삼 성

- 회의중지 선언

(11시 55분 현재)

◇의장 김 삼 성

- 속개 선언

(하오 2시 30분)

◇조 양 순 의원

- 이 사무장의 변명도 있을 듯하니 본인의 해명청취 할 것을 동의 재청..
삼청

- 표결결과 만장일치 가결

◇이 사무장

- 본 건에 대한 변명이 있었음.

※ 내용 생략

◇김 성 균 의원

- 본인의 개이가 이 사무장을 옹호하는 것 같고 생색발언도 같으나 그것이 아니고 금차 회의에서는 본인에게 경고정도로 그치자는 것을 재강조한다.

◇이 정 권 의원

- 교육청이 현재보다 일층 더 어질러졌던 차(車), 정(鄭) 사무장 재임 당시에 사무장의 파면 동의 운운의 말썽은 없었던 것이다.

사무장을 옹호하는 의원의 이면을 공개한다 운운의 중대한 말도 나왔으니 이의 진상부터 규명키로 하자.

◇김 창 희 의원

- 이 사무장은 천상천하 유아독존격인 행동을 하였다고 보며 설사 상사의 과오가 개재하였다 할지라도 보필하는 사람으로서 여사 불손한 언동을 하였다는 것은 용인할 수 없으며 시교육의 장래를 위하여서라도 단호 조치하여

야 한다.

박두순 의원-경고정도로 끝이자는 개의도 있었으나 이 사무장은 상습적으로 욕설을 농(弄)하는 사람으로 교육자치제 실시 7주년 기념식장에서 「미친 놈의 교육감」 운운한 사실도 있다.

- 본건 비공개리에 처결할 것을 재개의

◇명 남 철 의원

- 의원들의 이면을 공개하라는 중대발언부터 규명하기로 하자.

◇김 남 진 의원

- 정의원이나 본의원이 의원들의 흑막을 폭로한다 운운의 발언을 하여 본 일조차 없다. 구태여 아니한 말까지 추궁할 것이 없지 않느냐. 방금 이 사무장에게서 들은 말이나 모 의원이 사무장에게 돈을 도라는 등의 말이 있었다 한다.

사무장은 그 이면을 공개하라.

◇김 경 인 의원

- 중대발언이다.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니 이 사무장은 이 사실을 명백히 해명하기 바란다.(장내 소란)

◇의장 김 삼 성

- 산회 선언

(하오 3시25분 현재)

이 회의록을 확인키 위하여 자이 서명 날인함.

단기 4292년 6월 15일

시의원 김 성 군

시의원 김 일 섭

작성자 서기 주 도 식

제96회 제3차 목포시의회 회의록

1. 개 의 : 단기 4292년 6월 27일 상오 10시 5분
2. 폐 의 : 단기 4292년 6월 27일 하오 1시 10분
3. 장 소 : 목포시의회 의사당
4. 사 회 : 의장 김삼성
5. 출석의원 : 재적 16명 중 출석의원 12명
결석 의원 강영락, 김상태, 임석희, 김일섭
6. 출석공무원 : 시장 하동현, 부시장 이병규 및 각 과장
교육감 박세문 및 이 사무장
7. 의사일정

◆보고사항

- 각 의원 출장 결과보고
- 제12회 시정감사 결과보고
- 내무분과위원회 회의상황보고

8. 토의사항

- 각의원 출장 결과보고

◇김성균 의원

- 상대(商大) 유치, 디젤기관차 연결, 열차운행시각 단축, 냉동차 연결, 부산직결열차, 역전광장 보수, 호남선 우회, 관광사업, 영구차 설치, 시내 버스 설치, 고정 잔교설치, 자동차 적재선, 목포항 준설, 우체국 신축 문제 등 관 계요로에 절충교섭하였다는 요지의 보고가 있었음.

◇정응표 의원

-보충발언

◇박 내 무 위원장

-회의상황보고

(1)호남동 신탄상(薪炭商)으로부터 제출된 청원서는 집행부에서 처리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어 이송하기로 결의를 보았으며

(2)유달중학교 사친회로부터 제출된 분은 목하 심의중에 있습니다.

◇이 정 권 의원

- 30분간 휴회 동의하다.

- 재청...삼청이 있어 표결 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의장 김 삼 성

- 회의중지 선언

(상오 10시 40분 현재)

- 속개 선언

(상오 11시 25분)

◎ 제12회 시정감사 결과보고

제1반

◇김 성 균 의원 보고

(1) 직원신원보증문제는 아직까지 시정이 안된 부분이 있는 바 신원보증인 1인이 15인 내지 20인의 보증을 서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바 이는 부당한 처사라고 본다.

(2) 하시장은 사무집행이나 재정확보면은 우월한 편이나 도시계획면에 조홀(粗忽)한 감이 있다. 시정하기 바란다.

(3) 직원들의 광주출장여비를 당일 귀청 분에도 보통급행 열차실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부합이 안되므로 차라리 특급열차 실비를 지면(支辦)함이 가하다고 본다.

(4) 출장직원의 복명서를 필히 제출토록 하라

(5) 시의원의 여비 전도분에 대하여도 정산을 하여 주기 바란다.

(6) 사업장의 운영이 조홀함을 지적한다. 특히 연동시장은 불하할 용의는 없
는가.

(7) 소방시설인 저수탱크가 중앙동에 치중되었고 변방동에는 그 반대로 극소
한 바 이의 급속시설을 요망하고 소방서에 시비직원의 증원과, 소방차고의
확장을 요망한다.

(8) 각동의 감사결과

용당동과 대성2구동은 사무집행 상황이 엉망진창이다. 급속 능률적인 사무가
와 대체하기 바란다. 그리고 산정 1구동에서는 동직원들이 적십자회비 5만여
환을 입체(立替)납부하였다는데 주무과에서 이를 묵인하고 있음은 유감이다.
그리고 죽교1구동과 죽교2구동의 사무집행상황도 조홀하다.

◇박 두 순 의원 보고

(1) 재무과는 전반적으로 지극히 양호하다.

특별치하하는 바이나 수도료 징수 및 법인세 독려에 치중하여 주기 바란다.

(2) 건설과에서는 직원채용을 편법으로 인부임에서 지변하였음은 부당하다고
보아지며 급수일지 정리가 조홀함을 지적한다.

◇김 경 인 의원 보고

(1) 건설과 직원의 상수도 관계 여비가 매월 7,8만(환)씩 지급되는데 차라리
이를 시정하여 직원을 현장 근무를 시키는 것이 효과적인 것 같다.

(2) 건설화보대를 정당 과목에서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타과목에서 지
출하였음은 부당하다.

(3) 상수도공사의 국고금 배정 구천구백만환 해당액을 삼부토건과 수의계약
한 부분을 세밀히 검토하였는 바 모든 의아(疑訝)가 해소되었다.

(4) 종합설계 수료로 구백만환의 거액이 지출하였는데 의아심을 가졌으나 한
국에는 기술진이 없어서 불가피한 조치로 인정되었다.

(5) 금년도의 진보된 수특공사 내용을 검토하면 반개년간 경과한 우금(于今)
2개 공사 밖에는 착수안되고 있는 현실이니 여타공사에 착수에 치중하기 바
란다.

제2반 보고

◇명 남 철 의원 보고

- 교육위원회 관계

- (1) 교육세의 징수가 불원할호하기 때문에 이의 예산집행이 불원할하다. 이의 원인을 구명하였던 바 지방교육세의 부과가 엉망진창으로서 이의 실례로서 중앙동인 무안동의 최저남부자가 500환이라면 변방동인 산정1구동의 그것이 700환이라는 불공정한 부(과)를 한 것 등이다.
- (2) 각국민학교의 사친회비 폐지 후의 잡부금 징수 책임은 교육청에 있는 것으로서 그 이유로는 1주일 아동 1인당 시험지 2매 정도만 지급하면 이러한 폐단이 방지되는 것을 1개월 1매정도 밖에 지급않는데서 기인하는 것이다.
- (3) 경리관계는 전차 감사시 보다 진일보하였다.

◇이 정 권 의원 보고

- 예산없는 채무확정이란 있을 수 조차 없는데 이것이 집행되었다 함은 언어도단이다.

제3반 보고

◇김 상 대 의원 보고

- (1) 병사계의 서류정비 상황이 불비하며 서류편찬상황이 조홀이다.
- (2) 호적계의 용지 절약을 각별부탁하며 구내 대서(代書)의 시정을 요망한다.
- (3) 사회계의 증명불급에 신중을 기하여 주기 바라며 재건축택의 상환금 미징액 일소에 박차를 가하여주기 바란다.
- (4) 보건계의 병과상 검사에 주력을 경주하기 바라며 도로변의 음료수상 단속을 요망한다.
- (5) 노동계에서는 각 기업체의 실태파악을 정확히 하여주기 바란다.
- (6) 확장계에서는 미진된 공사의 연중 착공에 주력하기 바란다.
- (7) 건설과는 종합적으로 계획성있는 사무추진 있기를 부탁한다.
- (8) 공익 자산의 자금 증액을 도모하기 바란다.
- (9) 시립병원은 장부와 약품잔량이 불부합하며 세입면에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음은 유감이다.
- (10) 각동 감사 관계
 - 죽교5구동은 청사수리가 시급하며 서산동 역시 급을 요한다.
 - 영해동은 적십자회비 57,000환을 동직원들이 입채하고 있다. 주무과에서

선처있기를 요망한다.

- 각동의 전달부 배치의 시급성을 느꼈다.

◇조 양 순 의원 보고

- (1) 호적계의 기류부 정비를 시급히 하라
- (2) 사회계의 군경연금 지급액에 차액이 있다.
- (3) 생활부조금 배정에 신중을 기하여주기 바란다.
- (4) 건설과 직원들은 특근의 도수가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특근수당 지출이 안되었음은 어떠한 이유인가
- (5) 각동과 시간(市間) 왕복문서에 오자의 발견됨이 많으며 특히 용당동에서 제출한 공문의 내용을 검토하면 엉망진창이다.
동직원의 교양에 주력하기 바란다.
- (6) 도서관의 입관료를 5환선까지는 설정하기 바라며 도서관의 구입을 요망한다.

◇김 창 희 의원 보고

- 도로행정에 있어서 시당국에서는 매년 춘추 2계로 나누어 자갈을 까는 도로보수를 하는데, 시민들이 자갈을 부설하려면 1회 4백환의 금액이 필요하며 목포시 일만팔천호라면 이의 소요경비로서 3년 후이면 아스팔트 포장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점 창의성을 가지기 바란다.

◇정 응 표 의원 보고

- (1) 호적계 수수료 수입중 열람료가 한명분의 수입도 없다 함은 모순이다.
그리고 호적협회에서 부의금 및 음식대로 4분지 1(환) 해당액을 지출하였음은 이해난이고 직원의 호적강습회 여비로 일반회계와 호적협회에서 이중지불되었음은 부당하다고 본다.
- (2) 죽교동 573번지의 기류부 견출장을 간편하게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현재의 시립병원의 진용이 너무 미약하다고 보아진다. 이후 종합병원의 기능을 발위하고 유능한 의사를 초빙함이 긴요하다고 본다.
- (4) 엠블런스차까지 5월 30일부터 운행중지되었는데 외국에서 원조까지 하여 준 차를 이처럼 방치하여둔다면 이 실정을 원조측에서 알면 어찌 되겠는가.
여하한 난관을 극복하여서라도 엠블런스 차 운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토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5) 용당도선장의 운영에 있어서 현금은 개인소유의 엔진모터와 텍텍이 모터 30여척이 암(闇)운행을 하고 있는 실정이오니 하루빨리 현재 신조 철선을 인수 차에 대치철선과 교대운행함으로써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는데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건설과의 물품구입에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경비지출(犬 問題-개 문제)이 있는데 날짜가 다소 천연(遷延)되더라도 합법적인 서류를 만들어 지출하는 것이 온당한 처사라고 보아진다.

그리고 혹시 청 간부들이 어떠한 당고(當故-부모의 상)를 맞았을 적에는 각 예산과목에서 낼 수 있는대로 내고 있는 형편이니 앞으로 주의하여 주기 바란다.

◇의장 김 삼 성

- 산회 선언

이 회의록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에 서명날인함.

단기 4292년 6월 29일

시의원 김 성 균

시의원 김 일 섭

작성자 서기 주 도 식

제96회 제4차 목포시의회 회의록

1. 개 의 : 단기 4292년 6월 29일 상오 10시 30분
2. 폐 의 : 단기 4292년 6월 29일 하오 1시 15분
3. 장 소 : 목포시의회 의사당
4. 사 회 : 의장 김삼성
5. 출석의원 : 재직 16명 중 출석의원 11명
결석 강영락, 천철수, 임석희, 김상태, 김창희 각 의원
6. 출석공무원 : 시장 하동현, 부시장 이병규 및 각 과장
교육감 박세문

7. 의사일정

◆부의안건

- 제12회 시정감사 처리 전말 보고

◇장 건 식 총무과장 답변

- 김성균의원이 보고하신

- (1) 직원신원보증관계에 있어서는 과거 12월 중 제11회 시정감사시에도 지적을 받고 정비토록하였으나 차일피일 지연되었으나 여하튼 7월중에는 해당 신원보증인에게 일회통지한 후 회답이 없는 경우라도 그 신원보증전부를 해소시키겠습니다.
- (2) 직원출장여비지출에 있어서 태극호 해당액을 지출하라 하시어 사의를 표하는 바이나 그렇게 되면 예산상 구애를 받게 되므로 고려하겠습니다.
- (3) 복명서 처리에 있어서는 관외분(管外分)은 전부 제출토록하여 총무과 서무계에 비치토록하겠습니다.
- (4) 연동시장폐쇄문제는 차기 개최되는 의회에 부의하여 처분토록하겠습니다.
- (5) 시 동직원 간 인사교류문제는 그 절차상 시기상조이며 평소의 지도 감독에 전력을 경주하겠고 8월중에는 동직원 교양강습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김 상 대 의원 보고의

- (1) 각종 청사 수리문제는 금반 의회 종료후 순시하여 조치하겠습니다.
- (2) 동 급사 채용문제는 예산을 살펴서 고려하여 보겠습니다.

◇정응표 의원 보고의

- 본청과 각과, 단체 경비에서 부의금 등을 중복지출한다고 하는데 차후 가일층 단속하여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정 태 로 답변

- 김성균 의원 보고의
산정1구동 적십자회비 입체분은 직원들을 독려하여 조속히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 김상대 의원 보고의
 - (1) 사회과 제증명 사무는 앞으로 가일층 주의하겠습니다.
 - (2) 재건축택 자금회수문제는 일시적으로 기대난이나 월별 분납제라도 택하여 금년도에는 완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 (3) 공익질옥(저당포) 자금증액문제는 중앙통화위원회의 시읍면 케이스가 고갈된 모양이나 앞으로 노력하여 절충하겠습니다.

◇조 양 순 의원 보고의

- 군경연금의 액수차액이라 함은 도에의 보고 숫자 착오이었습니다.

◇김 상 대 의원 보고의

- (1) 음료수상 단속문제는 시민보건에 관련된 문제이니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 (2) 연막소독은 현재는 그 약품이 없으나 상부와 절충하여 앞으로 선처하겠습니다.
- (3) 각 기업체의 실태파악은 앞으로 추완하겠으며
- (4) 노동자의 권익보호문제는 시가 각 기업체의 감사권이 없어서 곤란하나 앞으로 도당국과 연결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정 응 표 의원 보고의

- 앰블런스 차 운행문제는 병원의 수입을 고려하여 활용토록 하겠으며 그 운영방도가 막연하면 반납조치라도 취하겠습니다.

◇박 병 렬 재무과장 답변

(1) 각종 세금의 미납분은 시민의 이동이 빈번하여 징수에 애로가 있으나 내 월중에는 완징을 기하겠습니다.

(2) 각 기관의 수도료 미징분도 내월중에는 전액 완징토록 하겠습니다.

◇김 연 수 산업과장 답변

- 김성균 의원 보고의

(1) 연동시장 불하문제는 조속 매각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 유달산 관광사업에 부수되는 산림녹화문제는 도 당국과도 연결하여 실시 시키겠습니다.

◇건설과장 이 춘 흠 답변

- 김성균 의원 보고의

(1) 도시계획에 있어서는 중앙의 백과장과도 상의한 바 있으나 앞으로 소범 위라도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2) 임시직원 채용은 용지매수사무가 바빠서 그리되었으나 앞으로는 그 명목 으로 안쓰겠습니다.

(3) 제장부의 미비관계는 직원의 손이 부족하여 그리 되었으나 앞으로 주의 하겠습니다.

◇김 경 인 의원 보고의

(1) 직원의 현장 주재문제는 현장감독이 아니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입니다.

(2) 건설화보대 지출은 1차 그 전일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특단조치하겠습니다.

◇김 상 대 의원 보고의

- 6월이 저물어진 현금까지 제공사가 부진상태에 있다함은 거개가 시자체 에서 설계하는 것이 아니고 주앙의 인가나 국고보조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시기문제이나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조 양 순 의원 보고의

- 직원특근수당 문제는 본인의 불찰로 그리 되었고 예산상 부득이 그리 되었으나 앞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김 창 희 의원 보고의

- 도로 포장문제는 근간 중앙과 도 간(間)에서 기계화로서 추진중이라 하니 불윈 해결되리라고 보아집니다.

◇정 응 표 의원 보고의

- (1) 견(犬)문제는 앞으로 정당방법으로 지출토록 하겠습니다.
- (2) 도선장의 모터 문제는 3,4일전부터 경찰서에서 취체(取締)하고 있으며 도 선을 오전, 오후, 1회씩 더 내기로 하였습니다.

◇호병과장 박 규 성 답변

- 김상대 의원 보고의

- (1) 병사 서류 색인 목록이 불비된 것은 즉시 추완(追完)하겠습니다.
- (2) 병사 서류 편찬불비분도 곧 시정하겠습니다.
- (3) 호적 기류용지 난용(亂用)문제는 각 관공서 청구의 무상 발부분과 매년 수시로 있는 병사관계 무료 공여분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정임을 양찰(諒察)하여 주시고 이후는 가일층 관심을 가지고 용지절약에 치밀한 단속을 하겠습니다.
- (4) 구내 대서 폐지를 말씀하시나 이로써 협회운영의 경비에 충당학 있으며 4286년의 법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였습니다.

- 조양순 의원 보고의

기류부를 단시일내 현주자(現住者) 단위로 정비하라 하나, 이렇게 하여 정확을 기한다면 모르겠으나 만약 착오가 생(生)하면 역효과를 내게 되니 다소 시일이 걸린다 하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응표 의원 보고의

- (1) 열람료 수입에 있어서는 앞으로 철저한 단속을 하여 수입의 정확을 기하겠습니다.

(2) 협회비 중 특별관공비 지출한 것은 부득이 한 형편이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강습회 여비의 이중 지불분은 시비 여비는 곧 반납조치하겠습니다.

(4) 죽교동 573번지의 견출장을 말씀하시나 동일번지가 여러 책으로 분철된 것이, 동명동, 서산동, 산정동 등만이 있으나 성별로 색출하기 편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검토하여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 소방서장 답변

(1) 금년도 예산중에서 저수조 2개소를 설치하겠으며 잉여가 있으면 1개소를 증설하려하는 바, 장소는 목여고 앞과, 연동 목욕탕 근처에 설치하려 합니다.

(2) 현 소방청사가 수십년 전에 건조한 것이기 때문에 소방차의 꺾납 드에 고충을 느끼고 있으니 각 의원께서는 이 점 충분히 양찰하시여 예산이 허용하는대로 확충되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박 건 흙 시립병원장 답변

- 김상대 의원 보고의

(1) 약품의 수불대장과 불부(不附)하다 함은, 현품은 사전에 구입하고 그 대장은 월말에 정리하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가 생(生)한 것 같으나 이 점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 정응표 의원 보고의

(1) 우수한 의사의 초빙 문제에 있어서는 이에 수반한 첫째 조건이 의료기구의 설치이고 둘째 조건이 의사의 처우개선일 것이니 앞으로는 시장님의 지시에 따라 예산면에 반영시켜 선처하겠습니다.

◇교육감 박 세 문 답변

- 명남철 의원 보고의

(1) 지방교육세의 부과불공평 문제

직원들의 부과기술의 줄렬도 있겠지만 자료수집에 따르는 기간 관계 등에도 원인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점 특단 유의하겠습니다.

(2) 각교 용지 배정문제도 앞으로는 선처하겠습니다.

※ 김경인 의원 지참(遲參)

(상호 11시 30분 현재)

- 이정권 의원 보고의

예산잔액이 없는 채무확정액 지출 문제에 있어서는 앞으로 가일층 연구하여 소정 법규에 위배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각 의원 보충질의

◇김 남 진 의원

(1) 재건축주택자금상환액 회수 관계를 금년중으로는 완납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막연한 답변이나 그 총액이 무려 2천5백만환에 달한 것으로서 지금의 징수 방법으로선 도저히 불가능한 형편이라고 보아지니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망한다.

(2) 구내 대서를 존치함으로써 협회의 운영을 도모한다하나 이것은 그 운영비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보아지며 호병과 사(舍)의 복잡만 일으키게 되니 이의 폐지를 요망한다.

◇조 양 순 의원

(1) 감사에 대한 전말 보고를 할 때마다 적당한 답변으로 넘기려 하나 좀 더 성의있는 답변을 요망하면서 시, 동 간의 인사교류에 대한 확실성 있는 답변과 동직원 교양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말하라.

(2) 특별판공비 지출억제에 노력하라.

(3) 산업과장도 감사시 지적받은 사항을 공개하라.

◇정 응 표 의원

- 총무과장은 부의금 이중지출 등은 만부득이한 일이고 호병과장 답변은 전 법원장에 만 그런일이 있었다는 말을 하였으나, 과거 감사 때에도 본 의원과 신문 기자와의 사이를 이간시키더니 이번에는 법원과의 사이를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가.

(이하생략)

◇김 성 균 의원

(1) 도시계획을 연차적으로 한다고 하였으나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하라.

- (2) 직원의 광주 출장여비 지출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하라.
- (3) 도서관은 차라리 무서관(無書館)이라고 함이 좋을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라.

◇김 남 진 의원

- (1) 소방서장은 저수조 시설후보지로 목여고 부근과 연동 등을 말하나 예산 편성 당시는, 형무소와 행남사 부근으 말하였던 것이다.
이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말하여 주기 바란다.
- (2) 감사기간 중 심리서 제출을 요구한 건이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이 없으
은 어떠한 이유인가.
- (3) 최근 용당동은 임모씨, 산정3구동은 김모씨가 동장에 발령되었다는 풍문
과 함께 출신 의원들을 괴롭히고 있다. 이것이 시와의 모종 연락없이는 이루
어진 문제라고는 볼 수 없으니 이의 진상을 밝혀주기 바란다.

◇이 정 권 의원

- 교육감은 5월 25일자 예산이 없는 불법 집행액 69만환을 관대히 양해하
여 달라는 답변이나 이의 변상조치를 한다던지 확실한 답변을 요망한다.

◇명 남 철 의원

- 사무장 사무인계서에 교육감의 입회 날인이 없음은 무슨 이유인가.

◇조 양 순 의원

- (1) 우금(于今) 50개 방장(坊長)을 임명 안시킨 이유 여하
- (2) 산정1구동에 거주하는 모 반장은 일제 시대부터 근속한 사람인데 이번
방장 대회에 출석조차 못하게 하고 재떨이 한 개 조차 안주었다니 너무 무
자비한 조치가 아닌가. 민주당이라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닌지 확실있기를 바
란다.
- (3) 그리고 동장 서리를 비롯하여 모 기관에서는 민주당이라고 하여 당원 아
닌 당원을 만들며 성가시게 하고 있음은 너무 가혹한 처사가 아닌가.

◇정 사회과장 답변

- 재건축택 자금 상환액 2천5백만환 회수문제는 그 대상이 시민이기 때문

에 순리적인 독려를 가하겠으며 악질적인 사람에게만 법적 조치를 하여 경종을 울리고 금년중으로는 완납토록 하겠습니다.

◇박 호병과장 답변

- (1) 김남진 의원이 질문하신 대서 수입만 가지고 지금은 협회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이니 그렇게 답변하였습니다.
- (2) 구내 대서, 존폐문제는 법원측과 상의하여 그 방침을 결정하겠습니다.
- (3) 정응표 의원이 흥분하여 말씀하신데 그 당시 전말보고 답변자료를 수집키 위하여 직원들의 말만 듣고 그렇게 답변하였는데 잘못이었습니다. 방금 법원 밖에 없다 운운의 답변은 취소하겠습니다.

◇김 소방서장 답변

- 김남진 의원이 말씀하신 저수조 시설 후보지는 그 예정 장소를 말한 것이고 확정 장소가 아니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산업과장 답변

- 조양순 의원이 말씀하신 감사 당시 지적된 사항은 축산동업조합의 사료 배급문제와 대여양곡문제였으나 앞으로 가일층 세심히 주의를 경주하여 유루(遺漏)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설과장 답변

- 김성균 의원이 말씀하신 도시계획문제는 앞으로 윤곽이 나타났으니 점차 연도별로 계획을 수립하겠다.

◇장 총무과장 답변

- (1) 조양순 의원이 말씀하신 시, 동간 인사교류문제는 시 인사위원회가 구성되면 점차 기회 있는대로 인사교류도 구상하여 보겠습니다.
- (2) 시의회 관공비의 과다 지출을 말씀하시나, 의장님의 합의로써 집행된 것이나 차후 유의하겠습니다.
- (3) 김성균 의원이 말씀하신 직원 광주출장 여비의 특급열차 해당액은 예산상 부족이 생기는 관계로 부득이 한 일입니다.
- (4) 도서관의 도서구입은 예산이 허용하는대로 도서구입을 하도록하겠습니다.

- (5) 김남진위원이 말씀하신 용당동과 산정3구동의 동장임명문제는, 생각조차 해 본 일이 아니오며 금시초문입니다.
- (6) 조양순 의원이 말씀하신 50개 방장의 임명 지연이유는 동장의 내신을 받아 임명하기 때문에 그리 된 것입니다.
- (7) 산정1구동의 방장문제도 금시초문입니다. 그 실정을 내사하여 문책하겠습니다. 민주당 운운 말도 어불성설입니다.

◇이 사무장 답변

- (1) 명남철 의원이 말씀하신 부과직원 단속문제는 앞으로 연구하여 걱정을 기하겠습니다.
- (2) 영선 보조직원 채용제도 실력있는 직원을 채용하려고 물색중에 있습니다.
- (3) 예산없는 과목에서 69만환을 집행하였다함은 별(別) 좌석을 베풀어 상의도 하겠으나, 구채를 상환하려고 하는데 기인한 것입니다.
- (4) 사무인계서에 교육감의 입회 날인이 없음은 고의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 응 표 의원

- 지난 날의 정기의회에서 김경인 의원의 발언으로 죽교2구동 시장부근 또랑 뚜경을 덮는 공사 추진에 대하여 말한 기억이 나는데 죽교3구동과 죽교2구동의 동한계선부터 이 공사가 중단되었는데 시장은 이에 대한 선처있기를 바라고, 관심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란다.

◇하 시장 답변

- 원래 계획은 달성국민학교 앞부터 죽교2구동까지 시공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중앙에서 현장을 답사한 후 불필요하다고 거절당한 것이나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다.

◇조 양 순 의원

- 앞으로는 축산동업조합의 사료배급에 걱정을 기하여주기 바란다.

◇김 남진 의원

- 변방 동, 즉 용당, 산정3, 죽교, 서산동에 공중전화를 설치하도록 차기 의

회의 추경 제안시에 계상하여 주기 요망한다.

- 근간 국산품박람회가 서울서 개최되는 모양인데 예산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동직원을 출장시키도록 추진하여 주기 바란다.

◇하 시장

- 전화가설과 동 직원출장 등 고려하겠다.

◇정 응 표 의원

- 목포적인 위치에서 지역적인 관광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관광사업 기획요원을 3명 정도 선출할 것을 동의하다.

- 재청...삼청있어 표결 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의장 김 삼 성

- 각 분과위원장을 지명

◇의장 김 삼 성

- 산회 선언

(하오 1시 15분)

이 회의록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에 서명 날인함.

단기 4292년 6월 3일

시의원 박 두 순

시의원 김 성 균

작성자 서기 주 도 식

제96회 제5차 목포시의회 회의록

1. 개 의 : 단기 4292년 6월 30일 상오 10시 45분

2. 폐 의 : 단기 4292년 6월 30일 상오 11시 25분

3. 장 소 : 목포시의회 의사당

4. 사 회 : 의장 김 삼 성

5. 출석의원 : 재적 16명 중 출석의원 11명

결석 강영락, 김상태, 김성균, 임석희, 김창희 각 의원

6. 출석공무원 : 시장 하동현, 부시장 이병규 및 각 과장

교육감 박세문

7. 의사일정

◆보고사항

- 각 분과위원회 회의 상황보고

◆부의사항

- 제1차 회의시와 동일함.

8. 토의사항

- 각 분과위원회 회의 상황보고

◇박 두 순 내무위원장 보고

- 부의 안건 제1항부터 제7항까지 각각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의하였다는
요지의 보고가 있었음.

◇김 경 인 의원

- 부의안건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일괄하여 상정할 것을 동의하다.
- 재청..삼청이 있어 표결결과 만장일치 가결

- ◎ 단기 4291년도 목포시 일반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 ◎ 단기 4291년도 목포시 수도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 ◎ 단기 4291년도 동정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 ◎ 단기 4291년도 목포시 도선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 ◎ 단기 4291년도 목포시 공익 전당포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 ◎ 단기 4291년도 목포시 국민주택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 ◎ 단기 4291년도 목포시 재건축주택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의장 김 삼 성

- 일괄 상정 선언

◇정 응 표 의원

- 이번에 일괄상정된 부의안건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전 안건은 각 상임 위원회에서 심심 검토한 것이고 그 당시 충분히 질의 응답을 완료한 것인 바 한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제안된 결산서에 자구 수정 개소가 몇군데 있는데 이러한 점, 차후 유의할 것을 전제로 원안대로 각각 무수정 승인할 것을 동의하다.

- 재청...삼청이 있어 표결 결과 만장일치 가결

◇정 응 표 의원

- 저반 본회의의 결의로써 본의원 등이 상경 출장하여 호남선 개선에 대한 건의를 관계당국에 한 바 있는데 이의 일부인 부산행 직통 차량을 래 7월 1일부터 연결하여 주게 된다는 바 이와 같이 민원속결을 위주로 하는 김 교통장관에게 감사전문을 발송할 것을 동의하다.

- 재청..삼청이 있어 표결결과 만장일치 가결

◇김 남 진 의원

- 전차회의에서 본의원의 동의로 교육위원회 이 사무장의 파면 건의를 제안한 바 있는데 그 내용을 탐지한 바 너무 직무에 열중한 탓으로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 것이고 이의 목적이 일을 잘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혀졌기 때문에 본 의원의 동의에 찬성하여 주신 의원들께서 양해하여

(누락)

였는 바, 이에 대한 사전 타합(打合)을 가지기 위하여 전남, 북 지사를 방문토록 교섭위원 1인을 파견할 것을 동의하다.

- 재청...삼청이 있어 표결 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의장 김 삼 성

- 정응표 의원을 지명

◇의장 김 삼 성

- 폐회 선언

(상오 11시 25)

이 회의록을 확인키 위하여 자에 서명 날인함.

단기 4292년 7월 1일

시의원 박 두 순

작성자 서기 주 도 식